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히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趙大濟
행 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동 0/T 411호
Tel: (051)245-7551 ~ 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 세 처: (주)동방인쇄 (051)636-9477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el: (02)783-0071 ~ 2, FAX: (02)783-0073

“얼마나 기다렸던가...” 본부 바둑대회 6월 10일 개막

본부동창회 주최 대망의 제1회 용마바둑대회가 오는 6월 10일 (일요일) 부산 중구 중앙동 봉운빌딩 6층 '부산중앙바둑센터'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바둑애호 동문들의 숙원을 풀고 기대에 부응하게 된 이번 대회는 각 동기회별 2개조까지 출전이 가능하며, 조별 선수는 5명이다. 현재 23개 동기회에서 26팀이 참가신청을 해 청년·장년·중년부로 나뉘어 각 부별 우승·준우승 등을 가릴 계획이다.

부산·서울을 비롯, 전국의 바둑애호 동문들이 출전, 용호상박전을 벌일 이날 대회는 강철민 프로 9단이 다면지도기와 해설을 맡게 되고, 여러 동문 프로기사들이 모두 참여해 지도기를 주관할 계획이어서 기대가 크다.

스위스리그방식으로 진행될 이날 대국은 단체전 4국제이다. 제1국은 무작위 추첨에 따른 대국을, 제2~4국은 각 승수가 같은 팀끼리 상호 대국을 통해 승수를 판가름한다.

모든 대국은 총호선이고, 덤 6집반이며, 제한시간은 한 대국 90분이다. 계시기를 사용하여 각각 30분 후 30초 초읽기 세 번으로 한다.

이날 대회 진행은 선수 확인 및 명단제출(오전 9시30분~10시)에 이어 △개회식(오전 10시~10시20분) △대국(오전 10시30분~오후 5시30분) △시상 순이다.

점심식사와 오후 6시부터 치러지는 단합회는 주최측이 제공한다.

※등록접수: 본부동창회 사무국 (전화: (051)245-7551~3, 팩스: (051)245-7550).

23개 동기회 26팀 출전
스위스리그제 총호선
청·장·중년부별 대국
서울 강철민 9단 등
동문 프로기사 참여
다면지도기·해설

본부 용마바둑회 창립총회

초대회장 한병조(13회)

본부동창회는 지난 5월 11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본부동창회관 14층 골동한방뷰페에서 용마바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조대제 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용마바둑회 회칙 제정

△한병조 초대회장(13회·본부회장·부일합동법무사회 대표·사진) 선출 △동창회장 용마바둑대회 6월 10일 개최 등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제21회 '왕중왕' 등장

본부주최 제2회 용마등산대회 “대성황” 종합 2위 15회·레이스 1위 20회 차지

제21회동기회가 지난 5월 27일 열린 동창회 장기 쟁탈 제2회 용마등산대회(본부동창회 주최)에서 패권을 쟁취했다.

이어 제15회동기회가 종합 2위, 제17회가 종합 3위를 마크했다. 또 레이스 1위는 제20회가 차지했다.

조대제 본부회장(7회)과 한동대 용마산악회장(9회)을 비롯한 동문 230여명과 가족 20여명 등 모두 25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승학산~엄광산~구봉산에서 치러졌다.

대회는 이날 오후 2시 구덕산 안부에서 각 동기회별 7명이 2분 간격으로 레이스에 돌입, 오후 4시50분~5시30분 장비검사, 산행일반 최종검사로 마무리됐다.

레이스에 참가한 각 기별 선수 및 응원단은 오전 11시50분 승학



산에 올랐고 오후 1시50분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타임레이스를 시작했다. 이밖의 동기회 동문·가족은 공식 레이스 대신 등산을 했다. 일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

간30분간 모교 경남고 국산기념관 뒤편 '용마공원'에서 열린 단합회를 즐긴 후 해산했다.

앞서 발대식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정문 계단에서 △본부용마산악회 제병민 부회장(13회)의 개회선언 △조대제 본부회장 대회사 및 협찬금 전달 △한동대 본부용마산악회장과 박호문 재경용마산악회 고문(15회) 측사 △오기현 산행대장(20회)의 대회요강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종합 1위: 제21회·2위 제15회·3위 제17회
- △레이스 1위: 제20회(1시간 47분)·2위 제13회·3위 제23회
- △취다참가상: 제22회
- △환경보호상: 제27회
- △감투상: 제14, 16, 24회
- △장려상: 제31, 32, 33회

△사진: 위에서부터 제2회 용마등산대회 폐회식·우승 21회팀 기념촬영·폐회식 후 경남고 국산기념관 뒤편 '용마공원'에서의 단합회.

서대신동 최고급 경남빌라

1층 고급주차장(17대)
2~7층 47평형: 12세대
8층 41평형: 1세대
총 13세대 중 5월말 현재 잔여분 7세대 분양

시행·시공·설계·감리

- 경남학원 원장 김근준 (1회, 본부고문) - 시행
- 효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오윤안 (23회) - 시공
- 설계·감리: 서울 한인건축 대표 김성탁 (18회), 부산 삼도건축 대표 김영 (25회)
- 모델하우스 OPEN ● 2001년 5월 31일: 입주 중 ● 경남학원 본관자리(최고급 빌라)

경남빌라의 특징

- 역세권 - 지하철 등대신동역에서 20m지점
- 경남빌라의 47평형은 타 아파트, 빌라의 52평형과 같습니다.
- 양질의 고급 마감재
창호·주방·비탁·조명·벽지(미제)(이타리제)(일제)(독일제)(일제)
- 빌라 건축의 설계·감리에서는 우리나라 유수의 서울 한인건축 김성탁 대표의 아심작품
-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완벽한 생활공간
- 2억원 이내 은행 저리 융자 (1억5천만원~5개월 무이자 융자)

비고	평형	전용면적	공유면적
경남빌라	47평형	42평형	4.5평형
* 실제 사용면적 52평			

● 문의전화: 051) 241-3343, 253-4223

시평



허범도 제22회 경기지방중소기업회장

업무에 전념해 왔으며,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1996년 발족한 중소기업청에 와서 전국의 중소기업을 일일일사(1日1社) 방문하는 등 중소기업인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

1번 타자는 그 어려운 투수의 공을 받아쳐 안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즉 팀의 공격이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으로 치면 기술개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역할을 3, 4, 5번 타자가 하게 되는데 이 셋을 클린 업 트리오(Clean up Trio)라 하여 투수의 주자를 깨끗이 불러들인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다.

책도 이 판매(마케팅-세일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반성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부딪쳐 봐야 단맛 쓴맛을 경험하듯,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기술력을 가지고 출발해 이 제품을 직접 시장에서 수요자(수출·내수)에게 팔아 봐야 수요자의 욕구

야구의 1번 타자와 4번 타자

한때 고교야구가 대단한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이었고 황금사자기 청룡기 봉황기 등 그 이름만 들어도 품에 안고 싶었던 가슴 설레이던 시절이었다.

활동 등 기술 생산 마케팅의 3위 1체론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야구에서의 1번 타자와 4번 타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야구에서는 투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타자가 치기 어려운 각종 강속구 변화구 직구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아야 실력 있는 투수가 되는 것이다.

따른 국경 없는 무역환경(Borderless Trade)에서는 새로운 기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1번 타자가 어렵사리 안타를 치고 나가면 그 다음은 2번 타자가 소위 세이프티번트를 시도, 주자를 확실하게 2루로 진루시켜야 한다.

수 있다. 야구의 목적은 점수를 넣어 이기는 것이다. 기업은 판매가 가장 중요하고, 팔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므로, 팔아서 이윤창출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존재 이유다.

이 값진 체험, 경이로운 눈뜸이 야말로 다시 연구실로 환류(Feed Back)되어 새로운 연구개발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개발은 1번 타자가 안타를 쳐 1루에 진출하는 것이오, 기업의 마케팅과 이익창출은 4번 타자가 주자를 불러들여 점수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강홍조(16회) 상금 1억 호암상 수상



강홍조 동문(16회·충북재활원 이사장·사진)은 과학·의학 등 학술 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제11회 호암상(사회봉사부문) 수상자로 뽑혀 지난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상금 1억원과 순금메달을 받았다.

정상천 본부고문(4회) '春秋有話' 펴내

롯데호텔서 출판기념회 정상천 본부고문(4회·전 본부회장·사진)은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최근 펴낸 47년간의 공직생활을 조명한 '춘추유화(春秋有話)'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책은 '자서전'도 아니고 '제자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처신했기에 정권의 부침과 관계 없이 그 긴 세월 중 주요 직위에서 공적을 맡아왔느냐'고 물어오는 후배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정 고문은 청운의 꿈을 품은 젊은 후배들에게 그 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이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승효상(25회) '2002 올해의 작가' 선정



승효상 동문(25회·이로재건축사무소 대표·사진)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의 '2002 올해의 작가(중견작가 부문)'로 선정됐다. 지난 95년 '올해의 작가' 제도가 시행된 이래 건축가가 초대되기는 승 동문이 처음이다.

문형남(20회)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문형남 동문(20회·사진)은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재임 중 최근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행정고시(15회)에 합격, 노동부에 들어가 노사협의과장·노동조합과장·근로기준과장·대전지방노동청장·노동부 공보관·부산지방노동청장·노동부 산업안전국장·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에 들어간 이 동문은 기획부와 각급 지점장을 두루 거쳤다.



연세대 정외과와 동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한 조 동문은 MBC에 입사, 보도국 사회·정치부 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뉴스 데스크 앵커·사회부장·뉴스편집1부장·보도제작부장·해설위원·통일방송연구소 위원·보도국 부국장 등을 지냈다.

이영오(20회) 한국은행 부산경남본부장 이영오 동문(20회·사진)은 한국은행 청주지점장 재임 중 최근 한국은행 부산경남본부장에 취임했다.

조정민(24회) MBC 대표이사 선임 조정민 동문(24회·사진)은 MBC 보도국 부국장 재임 중 지난 5월 18일 iMBC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한편 조 동문은 제46대 관훈클럽 감사를 역임했다.

월드드림투어 468-0025 세계로 가는 저렴길 용마인의 여행사 하계휴가 여행특선 동남아 중국 유럽 일본

미주캐나다대양주 하와이(3월관광+자유시간)7월 미사부코치 7월 하와이/미사부 11월 미동부항공 7월 캐나다핵심일주 9월 호주, 뉴질랜드 10월

♡자녀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월드 드림 하게 어학연수 뉴질랜드 필리핀 아르바이트 세계체험 현지 숙식비는 벌어서 가깝하게 해결한다

제25회 우승... 대회 3관왕 영광

용마테니스대회 준우승 28회 · MVP 조광도 (25회)

저력의 제25회동기회가 2001용마테니스대회에서 '우승스매싱'에 성공, 98·99년 2연패에 이어 대회 통산 3관왕의 금자탑을 세웠다.

지난 6월 3일 부산 동구 범일동 상록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6회 용마테니스대회(본부동창회 주최·용마테니스회 주관) 결승전에서 제25회(동기회장 조광도·테니스회장 이명철)는 대회 처음 왕중왕을 가리는 대회전에 나선 제28회(동기회장 조광제·테니스

회장 이인제)의 투혼을 따돌리고 대망의 패권을 쟁취했다.

이날 제28회는 분투를 삼키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고 제18-19회 연합팀은 3위, 제26회는 4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 MVP는 조광도 동문(25회)이 차지했다. 조 동문은 강력한 파워의 서브와 정교한 발리 등 뛰어난 공수력을 발휘, 팀 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우수선수상은 빈재석(28회), 감투상은 유성룡(18회), 미기상은 주규철

동문(26회)이 수상했고 행운대상은 마산에서 참가한 육하원 동문(21회)이 받았다.

연합팀과 단일팀 등 모두 20개 팀이 참가한 올해 대회에는 다크호스 제30회와 제32회 등이 오랜만에 출전했고 제33회가 처녀출전하는 등 패기의 청년층이 수없이 코트를 누벼 대회의 활성화와 전망을 밝게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동문-가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은 정형근 테니스회장(19회)의 대회사, 조대제 본부동창회장(7회)의 격려사, 경기방식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2001용마테니스대회에서 패권을 쟁취, 대회 통산 3관왕의 금자탑을 세운 제25회 팀이 우승기를 앞세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6.3 상록테니스장).

조대제 본부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용마가족은 테니스대회를 통해 친교와 정을 듬뿍 나누고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동창회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해 달라"

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당초 지난 4월 29일 부산대 테니스장에서 개최키로 했으나 비가 오는 바람에 연기, 이날 성료하게 됐다.



제14회동기회 3-8반 동문들이 가족들과 함께 아우회에 나서 거제 관공림에 해금강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14회 京釜 용마가족 거제관광

제14회동기회 3-8반창회는 지난 5월 12~13일 이틀간 경남 거제 일원에서 서울-부산 부부동반 합동아우회를 개최했다.

이순(耳順)의 고개를 넘은 30여명은 12일 저녁 장승포시내 '바닷가횃집'에서 거제중 교장인 조규태동문이 배운 전야제에 참석, 펄펄 뛰는 갖가지 생선회로 입맛을 돋궜다.

전야제는 축배에 앞서 권근술 대표반장(전 한겨레신문 사장)과 3-8반 부산회장인 김영식 동문

(신라병원장)의 인사가 있었고, "영원한 우정으로 여생의 희노애락을 공유하자"고 결의했다.

일행은 행사 이틀째인 13일 625 한국전쟁 포로수용소기념관~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해금강~외도 해상식물원 등 명소를 관광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동참, 성원을 아끼지 않은 손광웅(성모치과의원장)·윤용남 동문(육포초등 교장) 등에게 감사를 드린다.

구덕산우회 6명 필사의 히말라야 원정 6천2백m 아일랜드 피크 등정

전통과 패기의 구덕산우회(모교 산악부 출신 모임·회장 김대원·20회) 6명의 알피니스트들이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가 눈앞에 보이는 콤부 히말라야의 아일랜드 피크(Island Peak-6189m)를 등정, 태극기와 동창회기를 꽂았다.

이용만 동문(19회)이 단장을 맡아 진두지휘한 이번 원정대는 산행대장 오기현(20회)·재무 안형수(24회)·장비 이창흠(19회)·기록 김대원(20회)·의무 김준연 동문(28회) 등 50대 용마'들로 구성됐다.

지난 4월 5일 구덕산우회 아이

랜드 피크 원정대는 동료 산우회우들의 필승을 기원하는 전송의 손길을 뒤로 한 채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23일 만인 같은 달 28일 무사히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이후 10일만에 걸친 카라반후 난봉 중의 난봉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피크의 베이스캠프에 도착, 고소적응에 들어갔다.



구덕산우회 아일랜드 피크 등정에 성공한 원정대 6명이 베이스 캠프 앞에서 셀피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스캠프 출발한 지 사투 10시간 만에 정상에 성공위해 한라·지리산서 설벽·빙벽 등 강훈

원정대는 같은 달 19일 새벽 3시(현지시간)정상을 향해 필승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10시간의 사투 끝에 정상을 밝아 감격을 누렸다.

무사 등정의 감동을 안고 베이스캠프에 돌아온 일행은 4일간의 하행 카라반 후 카드만두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 원정대는 이번 히말라야 등반을 위해 그 동안 뒹아온 산행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겨울 한라산에서 5일간의 설상훈련-설벽훈련-쥬아령훈련 등을 감행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지리산 한신지계곡에서 빙벽훈련 등을 강행, 최고도의 기술을 축적시켰다.

21박 22일 등정스케줄

- ▷44 부산 - 상해 - 카드만두
- ▷45-6 카드만두 시내관광·등정허가·식량 준비
- ▷47 카드만두(전세버스)-지리(헬기)-루크라-2800m 카트
- ▷48 카트-3446m 남체 바자르
- ▷49 남체·바자르 고소적응
- ▷410 남체-3867m 탕보체
- ▷411 탕보체-4353m 덩보체
- ▷412 덩보체 고소적응
- ▷413 덩보체- 4930m 로부체

- ▷414 로부체-5180m고작·셋-카라파타-로부체
- ▷415 로부체-덩보체
- ▷416 덩보체-5100m아일랜드 피크 BC 고소적응
- ▷417 베이스 캠프
- ▷418 5700m 하이 캠프
- ▷419 하이 캠프-6189m정상-BC
- ▷420 베이스 캠프-덩보체
- ▷421 덩보체 - 탕보체
- ▷422 탕보체-3700m 상보체
- ▷423 상보체(헬기)-지리-카드만두
- ▷424 카드만두-상해
- ▷425 상해-부산

학술원회원 구영록 동문(7회) 별세

학술원 회원 구영록 동문(7회·서울대 명예교수·사진)은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구 동문은 미국 캔터키 웨슬리안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미국학연구소장·국제정치학회장·통일정책자문위원·통일정책평가위원장 등을 역임.



제기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문
郭正出
徐根照
安康泰
吳完洙
柳興洙

회장
金炳基

부회장
梁雄鎬
廉漢鎬
李明

崔亨旭
洪起煥

이사
이사
甘錦讚
姜秀雄
姜龍大
姜達經
金洙坤
金鏞正
金原炯
金寅燮
金仁植
金重河

金在煥
金鶴守
金恒坤
金孝珉
金南瀨
南盧英
朴聖佑
朴鍾述
潘泰柱
裴圭守
申大有
辛申業
申심

安鍾仁
呂運洛
吳吉動
李祥喆
李相泰
李相動
李成泰
李在珍
張英權
鄭光雄
曹楊鈺
池鈺浩
千金準
崔得鎬

韓榮圭
玄正春

감사
崔永守

총무이사
金東基

본부동창회 부회장
金仁鎬
朴煥太
安康泰
吳完洙
柳興洙

본부동창회 이사
金炳基
廉漢鎬
鄭重煥
崔亨旭

본부동창회 사무국장
崔得鎬

재경 제11회동기회 회장
鄭重煥

모교교가 작사 가람 이병기선생님 '6월의 문화인물' ... 용마 자긍심 높여

얼굴



20세기
시조부흥의
대들보

모교 교가 '찬란한 옥과 같이 길리고 길러-'의 작사 가인 가람 이병기(1891~1968·사진)선생님이 문화관광부 '6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돼 우리 용마가족에게 드높은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학자·교육자·한글운동가·시인으로 초창기 국문학 연구의 울과 날을 세운 가람은 이론과 창작을 통해 쇠퇴일로에 있던 시조를 부흥시켜 '20세기 시조 부흥'의 대들보가 됐다. 가람은 전주공립보통학교와 관립 한성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1921년 조선어강습원에서 주시경 선생으로부터 조선어문법을 배웠고, 이듬해부터 남양·전주·예산 등 공립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 시기에 국어국문학·국사관련 문헌 수집과 시조 중심 시가 문학 연구·창작활동을 폈으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으나 창씨개명은 끝까지 거부했다.

문화부는 가람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 추모 전국시조공모전(41~6.30 익산 예총) △ 기념 학술 발표회(6.22-한국어문회) △ 가람시와 음악의 만남(6.24-전북 문화동인회) △ 가람시와 그림의 만남(6.24-30-전북문학 동인회) △ 시조경향대회(6.29-30-온양문화원)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재경 경팔회 부부동반 33명 야유회 명승지서 '실버청춘' 만끽

재경 경팔회(제8회재경동기회) 봄야유회가 지난 5월 18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근교 명지산 계곡에서 전영배 회장을 비롯한 부부동반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세 좋고 물 맑은 이곳에서 마음을 씻어낸 일행은 귀가길에 설악스파랜드의 청정계곡마늘 옥천수로 피로를 풀고 양평 옥천강변의 진맛으로 시장기를 달랐다.

이날 경팔회 명사회 배주원 동문이 재치 있는 진행으로 차속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으며 박지병 동문 부인의 분위기와

흥을 돋구는 노래습씨는 가히 일품이어서 우리만 듣기에는 아까웠다. 이밖에 가수들 뽑치는 노래, 배꼽을 쥐게 하는 Y담을 시간이 없어서 다 듣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져야 했다.

특히 이날 모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준 이영창부부의 점심협찬과 김영학 김태규 김호석 전영배 홍기성 동문 등의 특찬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날 모임을 위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도 참석치 못한 조운제 동문이 조속히 쾌유되기를 빌었다.

신현주 '5월 기왕' 영광 팔선회 바둑대회

재경 경팔회의 바둑모임인 팔선회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일품기원'에서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유환 회장을 비롯, 윤태형 이종근 김진석 신현주 조석제 강성대 이창근 이희순 배주원 동문(이상 도축산) 등 10명이 대국을 벌인 끝에 신현주 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홍기원·최옥자 잔디회 골프대회

또 재경 경팔회의 골프모임인

잔디회는 지난 5월 3일 안성CC에서 7팀(25명)이 참석한 제99회 월례대회 겸 2000년 월별 우승자 최종결승대회를 개최했다.

이창근 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서 우승한 홍기원 동문과 최옥자씨가 순금 골프공(1냥짜리)을 상품으로 받았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남자부=우승 홍기원·준우승 전영배·3등 김태규·니어리스트 상 정진수·행운상 노재복.

△여자부=우승 최옥자·준우승 정중옥·니어리스트상 장은아·행운상 이정자.

본부동창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총무협의회의(각 동기회 총무모임·일명 慶總會)의 봄야유회가 지난 5월 20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 꽃동네~구덕산~약수터 코스 산행 등으로 열렸다.

이창대 회장(12회·동기회 부회장)이 주재한 이날 야유회에는 김수현 직전회장(5회 총무)을 비롯, 최병수(6회) 도은영(8회) 최성욱 총무(9회) 등 원로들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했다.

일행은 꽃동네를 출발, 구덕산을 거쳐 산행 1시간 20여분 만에 약수터에 도착, 갈증을 풀 후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에서 재집결했다.

이어 '산호초Hits'에서 점심식사를 했고 '왕별노래방'에서 단합회를 열어 결속을 재확인한 후 산회했다.

총무협의회의 봄야유회

꽃동네~구덕산~약수터

홀수기 연속4년 패권

마산·창원 체육대회... 최다참가상 제19회

지난 5월 20일 경남 마산 한일전산여고 잔디구장. 전통을 자랑하는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제23회 가족사랑체육대회가 팡파르를 울렸다.

무학산 정기를 한껏 들이마신 200여 용마가족이 초원에서 펼친 원색 유니폼의 대회전은 도약을 예고했다.

김재근 회장(19회·동마산병원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 1부 종목별경기에서 홀수기는 짝수기와 맞서 △축구 △원피구 △발야구 △손수레운전 △줄다리기 등을 겨뤄 4년연속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화합과 결속력을 과시하는

최다참가상은 제19회동기회가 차지했고, 최우수선수상은 옥화원 동문(21회)의 부인이 받았다.

2부에서는 노래와 장기자랑이 열려 저마다의 '숨은 끼'를 발산시켰다.

이날 팀별 일체감을 과시하기 위해 홀수기는 청색모자를, 짝수기는 흰색모자를 쓰고 선전했다.

홀수기팀은 감독 이준(15회)·주장 이상기(21회)·주무 홍정표 동문(31회)이, 짝수팀은 감독 박소용(16회)·주장 강상대(22회)·주무 문현식 동문(32회)이 작전과 응원전을 리드. 자기팀에 일사불란한 활약을 불러넣었다.

한편 본부동창회(회장 조대제·

7회)와 지역동문들이 격려금을, 각 동기회에서 상품을 협찬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3회)과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19회) 등이 축전을 보내 격려했고 공민배 창원시장(27회)과 황철곤 마산시장이 참석, 행사를 축하했다. 단체상과 개인상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단체상 ▷종합우승: 홀수기팀 ▷최다참가상: 제19회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옥화원 동문(21회) 부인 ▷우수선수상: 배병호 동문(32회) ▷감투상: 강위수 동문(20회) ▷비둘기상: 안종무 동문(6회) 부부 ▷인교상: 백수현 동문(33회) 부부.

▽동문·가족들이 장기자랑에 참여, '숨은 끼'를 발산시키고 있다.



"뜨거운 협찬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7일 열린 제2회 용마등산대회를 위해 본부동창회를 비롯, 직능회·개인들이 특찬금 및 각종 기념품을 협찬했다. 협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부동창회=금일봉
△본부용마산악회=금일봉
△재경용마산악회(회장 정충언·17회)=금일봉
△제13회산우회(회장 공한국)=20만원
△제15회산우회(회장 장중호)=30만원

△하영수(17회·한국치공구 대표)=20만원
△채경석(20회·오복식품 대표)=각 동기회 표시기·플랜카드·깃발 등 160만원 상당
△김대원(20회·한도실업 대표)=20만원
△전 풍(27회·두산 부사장)=군주 10상자
△서태교(31회·태광산업 대표)=50만원 상당 우의 10벌.

경열회 6월수업 다채롭게 구성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회장 서진홍) '6월학급수업시간표'가 확정됐다.

이 시간표에 따르면 경열테니스대회가 지난 1일 타워호텔 테니스코트에서, 강북화요회가 5일 낮 12시 중앙극장 건너편 '평래옥'에서 각각 열렸다.

또 분당새보리회는 오는 8일 오후 7시 '청해수산'에서, 안산 화요회는 12일 낮 12시 안산 중앙역 근처 '다리목추어탕'에서, 여의도화요회는 19일 낮 12시 여의도 '옛골'에서 각각 만난다. 그리고 사니조야동산회는 17일

오전 10시 양재역 5번 출구를 통해 농협앞에서 만나 청계산에 오르고, 강남화요회는 26일 낮 12시 동기회사무실에서, 경록골프회는 28일 낮 12시 자유CC에서 각각 하루를 즐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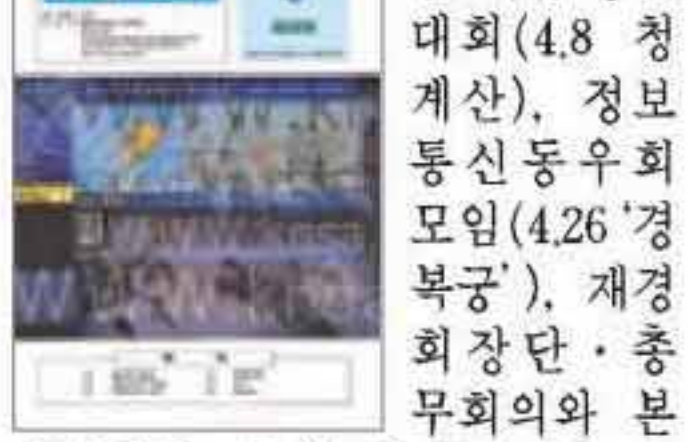
재경동창회 소식지 '龍馬' 30호 발간

재경동창회(회장 이규만·12회)소식지 '龍馬' 제30호(2001. 4)가 최근 발행됐다.

이번 호에는 '재경동창회 홈페이지(www.knsa.co.kr)재탄생'을 머릿기사로 올려 다양해진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첫 이사회(3.22. 팔레스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의결한 '재경 정기총회 11월 둘째주로 변경' 등

주요의제 및 회의과정을 다뤘다. 그리고 제33회 기별야구대회(6.3~7.8 한빛은행 도농구장 등) 일정 및 대진표·경기장 약도 등, 동산의 날 기념 동반대회(4.8 청계산), 정보통신동우회 모임(4.26 '경북공'), 재경 회장단·총무회의와 본부동창회 정기총회 등 각종 소식을 실었다.



이밖에 <연재물> '남성이 다시 산다', 수상, 각계 영진동문 소개, 회비납부 현황 등을 게재했다.

항만 등 동문 등대회 소식지 '등대회보' 156호 발행

등대회 소식지 '등대회보' 제156호(2001. 4. 28)가 발행됐다.



이번 호에는 △간사회(4월 3일) △가족야유회(5월 5일) △2월 정례회 보고 △업체탐방(협성검정<주>) △회원 동정

제18회동기회 소식지 '18번지 친구들' 10호 발간

제18회동기회의 소식지 '18번지(6통4반) 친구들' 제10호가 지난 4월 25일자로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이성일 회장 체제 출범 △새 회장단 명단 △동기생 근황 △자녀 결혼 등 각종 소식 △고 강정문 동문 추모집 발간 소식 △본부동창회 홈페이지 가이드 △경조사시 상식 등이 실렸다.

'凍土' 녹이는 熱情의 화합

중국대륙의 용마가족 현주소를 찾아서

박해득

제24회·중국지역회장

중국지역동창회는 북경을 비롯, 상해 남경 천진 등지의 동문들로 결성,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화합과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회보 제322호, 2001년 3월 24일 8면 보도).

중국회는 작년 4월 초 북경에서 출범의 뜻을 올렸다. 필자를 위시해 진익철(25회) 박석환(28회) 배승환(30회) 백현철(32회) 배한석(37회) 등이 의기투합해 일(?)을 벌였다. 필자가 초대회장을 맡게 됐고 이후 매월 24일에 정례회를 열어 골프대회 등으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에는 정철준동문(22회)이 외국인어학원에서 중국어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돼 환송회를 벌였다. 이 빈자리를 김동철동문(25회)이 새로 채워주는 바람에 이날 밤은 '아름다운 이별'과 '신선한 만남'을 위한 한마당으로 꾸며져 '광란(?)의 동심'을 연출했다.

정 동문은 유학 중 한국의 여학생 등에게 점심공세(?)를 자주하고 어려운 중국어도 잘 가르쳐주는 배려로 '후덕한 오빠'로 통했다.

또 전날인 15일에는 회장인 필자가 상해로 가서 이곳 한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박석환 동문을 만나 지역동문 발걸음 비롯한 조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초에는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의 박석환동문이 상해총영사관으로 진출돼 눈이 쌓인 향촌골프장에서 눈바람을 맞으며

환송라운딩을 벌였다. 박 동문 후임으로 김재만 동문(28회)이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올 구정 때는 홍성표 동문(23회) 부부가 용마가족 모두를 자택 만찬회에 초대해 감동을 연출했다.

특히 앞서 작년 11월 중순 홍동문과 이수용 동문(28회·당시 외환은행 천진지점장)은 우리들을 부부동반 천진에 초청, 온천관광 골프 단합회 등을 베풀었다.

이날 저녁 용마가족 30여명은 홍 동문 부부가 배운 한식점 단합회에서 회포를 풀었다. 구수한 말솜씨로 좌중을 사로잡은 홍동문의 재치로 '잊지 못할 밤'이 됐다.

현재 장현동 김도연 동문(이상

24회)은 개인사업을, 성실하고 소담한 성격의 진익철 동문(26회)은 회사일을, 이우영동문(26회)은 인터넷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 배승환 동문(30회)은 가정보다 회사를 위해 태어난 듯 바쁘게 뛰어다니고, 아시아나 북경지점장 백현철 동문(총무)은 언제나 동문들 모임을 주관하고 분위기를 잘 잡아주며 서울갈 때 자리 없으면 재주껏 자리도 잡아준다. 회사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아 '북경의 인물'로 통한다.

한편 김영수 동문(40회)은 상해에서 남성해운 지사장으로, 진명환 동문(44회)은 남경에서 광고와 인테리어사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부산에 온 제12회 서울 골프회 동문들이 부산의 용마골프회 동문들과 친선대회를 앞둔 전야제에서 축배를 나누고 있다.

제12회 경북 친선 골프대회

우승 김영록 차지

경부친선골프대회가 불꽃 튀는 라운딩을 벌였다.

제12회 용마골프회 주관 재경골프회 초청 대회가 지난 5월 20일 경남 양산 아도니스CC에서 서울-부산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라운딩에서 영예의 우승은 김영록, 준우승은 김영길, 메달리스트는 서영태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앞서 19일 저녁 부산 온천장의

일식집 '대성관'에서 열린 전야제(김철기 왕한균 동문 초청)에서 서울 부산 동문들은 축배와 노래 및 장기자랑으로 회포를 풀었다.

축배에 앞서 부산에서 강수현회장이 환영사를, 서울에서 김기수회장이 답사를 했는데, 정이 듬뿍 담긴 내용어이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전야제를 마친 일행은 숙소인 늘봄호텔에서 바둑대회를 벌여 수담(手談)을 통한 우정을 깊게 심었다.

중국지역동창회가 조직강화를 위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중국회는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 북경의 일식점에서 박해득 회장(24회) 주재로 정례회를 열고 △6월 골프대회 △동문발굴운동 적극 추진 △가족동반 체육대회 등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6월의 골프대회 때는 북경에 오는 동문 경우 엔트리멤버로

북경에 용마열기

중국지역 6월 골프대회 추진 월례회에 고국동문 다수 참석

받아주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중앙대 교수로 안식년 연구차 북경에서 1년간 유학하게 된 김형국 동문(22회), 처음 나온 김도연(24회) 김재만(28회) 고정환 동문(37회), 출장 온 국회의원 엄호성 동문(28회) 등이 참석해 분위기가 더한층 뜨거웠다

부부30명 경주 남산에

제15회 일오산우회

제15회동기회 일오산우회는 지난 4월 15일 장중호 회장의 진두지휘로 경주 남산 등산대회를 즐겁게 치렀다.

김중광 산행대장이 치밀하게 리드한 이날 산행에는 장회장 부부를 비롯, 경주의 유병용 동문과 산우회에 '켜켜출연'한 이동근 동문 부부, 오랜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수방 동문 등 모두 30명(남 20·여 10명)이 참석했다.

특기 이기준 동문의 부인 이정희씨는 이날 홀로 '용감한 출행'을 해 박수를 받았다.

하산 후 단합회는 김중광 산행대장이 특찬금 20만원, 강재모 장중호 정준수 손부홍 정수방 유병용 동문이 각 10만원을 쾌척해 '얼큰한' 분위기가 됐다.

이날 김장길 김중광 김창구 신흥규 이승남 임상택 장중호 정준수 동문도 부인과 함께 참석했으나 강재모 김 훈 김항영 박찬호 손부홍 이기철 정수방 조일량 한해수 황춘식 동문은 혼자 달링나와 외로움을 술로 달래야 했다.

이기주 동문(9회) 아들 在美역사학자 이중수씨 '백범일지' 영문판 출간 "화제"

클로즈업



美 학계선 김구 선생을 테러범으로

하버드대 교재선정 학계 반응 대단

외교부차관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대사를 지낸 이기주 동문(9회)의 아들로 미국 사회계에서 촉망받고 있는 역사학자 이중수씨(33·사진)가 '백범일지' 영문판 출간, 하버드대 교재로 쓰이게 해 화제다.

하버드대 역사학과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냉전사'를 연구하던 몇 년 전 이씨는 교수들이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김 구는 중국 상해 폭탄테러를 주도한 '테러리스트'로 역사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는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씨는 미국학자들의 이 같은 김 구 선생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일본 학자들이 자의적으로 쓴 '한국 근대사' 및 '백범해석'을 미 학계가 여과 없이 마구 반아들인 결과라고 판단, '백범일지'의 영문판을 위해 번역에 들어갔던 것.

외교관인 부친 덕택에 중학 1년때(83년)부터 외국에서 공부를 했던 이씨는 "항상 '한국인은 어떤 민족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김 구 선생을 발견했으며, 그의 일대기 '백범일지'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백범일지 영문판 출판을 계기로 미국 학계에 잘못 소개되어 있는 한국사를 바로 잡는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범일지' 영문판은 노학자인 로버트 스톱피노 전 버클리대 교수 등 쟁쟁한 여러 학자들로부터 큰 반응을 불러오는 등 미 학계의 주목을 집중시켰으며, 하버드대 '한국현대사' 강좌의 필독서로 선정됐다.

미국과 중국에서 제15회동기회 홈커밍데이행사 참석차 모교를 찾아온 동문들이 부산 친구들의 '스페셜 쇼' 초대를 받고 '윈더풀'을 연발했다.

미국 LA의 이상모 동문 부부는 졸업4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5월 12일)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달 10일 귀국, 이날 저녁 부산 자갈치 '명물횟집'에서 한해수 전 동기회장 부부가 주축이 돼 마련한 환영회에 참석,

"환영회 윈더풀"

제15회 홈커밍 참석 미국 LA 이상모 부부 중국 청도 강길연 동문

'떨어져 있던 정'을 만끽했다. 이날 환영회에는 10여명이 모였고 일행은 단란주점 '샤넬'에서 뒤풀이를 했다.

또 중국 청도의 강길연 동문은

이날 부산 사하구 괴정동 '동백숯갈비집'에서 손부홍 동기회 관운영위원장과 김창구 사하회장이 주축이 돼 마련한 환영회에 참석, 우정을 확인했다.

손 위원장을 비롯, 10여명이 모인 이날 환영회에서 강 동문은 중국에서의 성공담을 털어냈고, 중국의 명주 '마오타이'를 한 잔씩 들렸으며, 동기회관 운영 기금으로 10만원을 쾌척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자녀 40여명 '신나는 어린이날' 등대회 가족 봄들놀이

부산권 해운 항만 수산업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친목단체인 등대회 봄야유회가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경남 양산 '해운관광농원'에서 열렸다.

김 조 회장(16회·청운통상 대표)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동문·가족 9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자녀들이 40여명이나 참여해 어린이날을 실감나게 했다.

일행은 노경보 동문(33회)의 재치 넘치는 사회로 '둥글게둥글

게 게임(모두가 둥글게 서서 돌아가 사람 수보다 적은 빈 의자에 먼저 앉는 게임) 등을 폭소와 함께 즐겼다.

특히 이날 행사를 위해 △옥영철 동문(21회·서진해운 상무)이 특별찬조를 △주우실 동문(22회·대한통운 부장)이 어린이용 선물세트를 △구봉수 동문(34회·국내외 관광여행 알선 전문회사인 '월드드림' 전무이사)이 제주 왕복 항공권 2장을 제공했다.

제26회 야유회

제26회동기회 봄야유회가 지난 4월 29일 전날부터 비가 내려 당초 개최지인 아가피아농장에서 김해 '북한음식' (박장현 동문 운영)으로 옮겨 열렸다.

김성환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곳은 날씨임에도 30여명이 참석, 북한순대 등 별미를 맛보고 노래방에서 열창대회를 벌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 및 대동제를 위해 김회장이 30만원을 협찬한 것을 비롯, 30여명이 25만원~5만원을 각각 쾌척했다.

은사소식

박경원=(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9 선경빌라 110동 201호. 031-712-9975

뉴질랜드지역동창회

朴聖圭(13회)=주소 153 Colwill Rd, Masscy, Auckland. 전화 832-8403
盧慶鉉(16회)=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함
金鎭源(20회)=5년간 운영하던 농장 매각 후 이사. 새주소 24 Winslow Heights Rd, Papakura, Auckland
李尙秀(23회)=뉴질랜드지역동창회 부회장. 지난해 11월 부친 별세. 재뉴 한인무역협회 회장
金承德(28회)=뉴질랜드지역동창회 총무. 이사. 새주소 60 Orakei Rd, Remuera, Auckland. 부인이 유학원 개설함(Judy International Academy) 뉴질랜드로 자녀 유학보내실 동문 연락바랍니다. 전화 0064-9-529-1662
河炳甲(37회)=현대관광(개인) 가족관광 전문) 현대 운전학원 운영. 전화 0064-9-836-1510, 025-272-6156

제 1 회

魚保泳=5월 28일 별세

제 8 회

趙鈞濟=5월 3일 삼성병원에서 위수술을 받고 열흘간 입원 후 경과가 좋아 퇴원가료중
李永昌=5월 6일 고려병원에서 간염증상으로 열흘간 입원가료를 받고 퇴원
金洙倫=6184 Canary CIR, Buena Park, CA, 90620 U.S.A. 1- 714-522-7716
金東圭=(자택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738 백마마을 한양아파트 402동 401호. 031-902-9985
洪起城=(자택이사)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우성아파트 501동 1107호
金珍爽=4월 24일 명동성당에서 장녀 승미양 결혼

제 10 회

裴吉淳=5월 20일 부산예식장에서 아들 병모군 결혼
崔秉道=5월 20일 메리움예식장에서 아들 규열군 결혼
金熙柱=팔아주(리데나) 대표. 051-246-5392
文昌海=성원화학 대표. 051-323-4369
李義道=태강선기공업사 대표. 051-412-0492
최형백=3월 30일 모친 별세
高錫銘=4월 4일 모친 별세

제 12 회

田宰久=4월 28일 별세
金商沃=전남 무안 영해수산 대표. 061-452-4140
朴正潤=전남 구례 화염사 영빈회관 대표. 061-782-2794
白勝均=전남 여수 롯데빙과 대리점 대표. 061-642-2489
金永九=동광중기 대표. 051-803-7900
金鍾源=5월 12일 대구제일교회에서 장남 결혼
朴文基=(자택이사)부산시 서구 암남동 180 태경시티빌라 603호. 051-254-4765
朴朝元=5월 13일 삼남 결혼
白龍一=(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현대아파트 107동 303호
徐茂敏=5월 12일 4녀 결혼
宋世文=4월 22일 동창회 뉴시대회에 동기회 회장으로서 입상시키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宋永吉=4월 16일 춘천에서 장남 결혼
申東星=5월 13일 대구에서 장남 결혼
尹亨圭=(주)피엔텍 대표회장에 취임. 031-940-1000
林元贊=5월 20일 장녀 결혼
張志洽=5월 19일 서울에서 차남 결혼

제 13 회

金鍾閣=5월 11일 서울 센트럴시티 웨딩홀에서 장남 성수군 결혼
李哲世=5월 19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장에서 차녀 경아양 결혼
宋昌植=5월 19일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삼녀 현정양 결혼



李泰煥=5월 19일 서울 로얄프라자 3층 사파이어홀에서 장남 동학군 결혼
安喆煥=5월 26일 군인공제회관 밀레니움 웨딩홀에서 2녀 결혼
林勇秀=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 431 (8/4)
鄭魯相=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9-16. 283-4123, 011-825-4823
권병록=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20-8 (21/1). 051-291-9036, 016-816-9036
宋文一=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대림파크빌아파트 101동 401호. 051-816-6886
安秀雄=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563-40 금정 부광아파트 101동 609호. 051-516-2575
裴大結=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10 화목아파트 110동 1103호
姜秀敏=행림병원 신경과 과장 부임. 부산시 금정구. 051-517-8211~5
姜政文=(이전개업)부산호텔 건너 외환은행 7층 703호
조형재=양생식품.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165. 055-582-4444
李永紘=4월 1일 크라운호텔에서 차남 결혼
金永明=4월 7일 부친 별세
車英一=4월 21일 부산 중앙성당에서 장녀 유진양 결혼
文顯吉=4월 22일 미남로타리 금강웨딩홀에서 차녀 혜영양 결혼

제 14 회

尹龍雄=5월 5일 사직동교회에서 장남 결혼. 051-501-7807
朴鍾汶=삼성약국 대표. 5월 13일 부산호텔 예식부에서 장남 결혼. 051-242-9187
金興寬=두메약국 대표. 051-646-1444. 5월 13일 코모도호텔에서 장녀 결혼. (자택)051-416-7909

李光彦=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 교사. 5월 13일 크라운호텔 예식부에서 장남 결혼. 051-624-4803
柳總一=부산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051-240-7243. 5월 18일 모친 별세. 5월 19일 동아대교수회관에서 장남 결혼. (자택)051-624-1742
趙孝一=(자택이사)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135-4 부흥3차맨션 302호. 051-754-3896
金和玉=월드림투어(주) 고문. 국내 및 해외여행 알선 업체.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53-11 동아일보사빌딩 1층. 051-468-0025, 011-853-1432
金永大=인천항도선사회. (자택이사)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472-57 SK아파트 104동 202호. 051-528-6784

제 15 회

金順七=(자택이사)부산시 남구 용호2동 동일아파트 1동 601호
裴永洙=(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08-5 동부올림픽타운 111동 404호
徐八根=4월 22일 별세
安吳叔=5월 20일 서울에서 장남 명기군 결혼. 5월 25일 부산 서라벌호텔 지하1층 가야홀에서 피로연

제 16 회

李成珪=가야일보 편집국장. 5월 31일 숙환으로 별세
李孟立=동부화재보험 다전대리점 대표. 051-464-6875. 동기회 사무실에 등글의자 5개 제공
池秀信=태광산업(주) 상무이사 겸 공장장. 울산. 052-272-7211
金良元=(주)과학조선 대표이사. (자택전화변경)051-915-4330
安國正=(이전확장개업)엘리트어패럴상사 대표. 부산시 중구 부평동 엘리트빌딩 1층. 051-245-6518
張相進=(사무실이전)동신종합건축사무소장. 부산시 동구 초량3동 연합빌딩 702호. 051-441-3663~5
金正直=(사무실이전)경도상사 대표.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84-12. 051-758-2689
金英漢=(주)해태유통 회장. 02-428-0415. 사무국장 격려코 상경

卞相明=(사무실이전)덕형건축설계사 대표.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24-27. 051-291-2074
姜永錫=대영수출포장 대표. (자택이사)경남 양산시 덕계 태원아파트 104동 804호
심무웅=승리감리교회 목사. (자택)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우림그린맨션 101동 101호. 051-291-5014
李明洙=(자택이사)경남 합천 합천동 839-7. 055-931-2273
金政鎬=(주)경국 대표이사. 051-463-9760. 5월 19일 아들 지운군 결혼

제 18 회

高正大=(개업)선식집. 부산 안락동 선경아파트 뒤편. 051-531-0337
趙鏞泰=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해화아파트 B동 205호. 051-291-9671
孫永權=3월 31일 해운대 신도시 정과정성당에서 세례 받음.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두산 2차아파트 203동 2002호 051-702-4147
金東鉉=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현대아파트 106동 606호
盧星河=(주)MSC(명신건설주식회사). 019-508-0316
金熙重=자연농산 대표. 051-818-0885~6
洪鍾秀=부산시 부산진구 당감2동 태화현대아파트 201동 1602호. 051-897-1156
金吉出=(주)한국주철관 대표이사. 051-291-5481
金東會=상지종합건축 대표. 051-247-0208
金思權=부산 경찰청 방법과장. 051-851-5200
金元泰=김원태세무회계사무소장. 051-241-0701~2
金鍾琴=산부인과의원 원장. 부산 괴정로타리. 051-291-5335
徐富源=한솔공인중개사 대표. 파워펀치 119 소화기 사하지사장. 051-293-9308
梁龍吉=부산시 상수도본부 총무 부장. 051-888-5510
禹元鎬=정화약국 대표. 부산 서대신로타리 위생병원 앞. 051-241-0110
林道根=(주)삼공사 사장. 부산 하단로타리에 미우즈라이브 개업. 051-200-3004
高正大=태평양 선식 개업. 부산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 (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충렬초등학교 옆. 051-531-0337
金萬根=창원공단에 세 황전자 (주) 창업. 055-275-4300
鄭亨根=5월 17일 장녀 선경양 결혼
鄭起龍=지산고등학교로 전근. 4월 6일 부친 별세
黃正男=5월 12일 코모도호텔에서 장녀 은영양 결혼
金相奎=4월 21일 서라벌호텔 무궁화홀에서 장녀 성신양 결혼
崔喜英=4월 15일 서면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장녀 정인양 결혼
千斗甲=4월 14일 하모니에식장에서 장녀 지연양 결혼
洪宇在=4월 1일 부산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장녀 결혼
金進=3월 4일 서울 프리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장녀 나정양 결혼
李興洙=2월 17일 부산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장녀 소영양 결혼
宋翔一=2월 14일 서라벌호텔 무궁화홀에서 차남 명환군 결혼
漢漢奎=3월 6일 모친 별세
郭明琪=1월 17일 부친 별세
차준호=(순도). 1월 9일 부친 별세
崔康登=1월 7일 모친 별세
金玉吉=지난해 12월 29일 부친 별세
朴星溶=지난해 12월 24일 모친 별세

제 19 회

金德洙=대전지역동창회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무부장. 042-860-5900. 011-450-5900. (자택)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520-1 열매마을 808동 1602호(계룡새미래). 042-477-5875

제 20 회

薛勝龍=설승용이비인후과 원장. 5월 12일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아들 결혼
金容民=5월 20일 동래 금강예식장에서 딸 현아양 결혼. 051-747-8005
太仁植=6월 3일 창원(창원교육청) 교원공제회관에서 딸 결혼
李榮五=한국은행 경남 및 부산 지점장으로 영전. 051-240-3701
李誠福=효성건설 부사장. 건강 악화로 현재 동아대병원 7307 호에 입원가료중. 동기생들의

병문안을 바랍니다. 051-247-6600

제 21 회

丁東一=4월 28일 영도 중앙교회에서 장녀 한나양 결혼
金純一=5월 12일 부친 별세
崔熙春=5월 13일 서울로 이사
韓洙光=한국정밀필타(FILTEC KOREA) 부사장. 경남 양산시 물금읍 중산리 606-4. 055-381-4052~3. 5월 1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장녀 상아양 결혼
姜昌洙=(상호변경)대경F&B(주). 종합식품회사로 사업영역 확장 051-255-7211. 서울지점 영업본부 개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도쇼핑타운 7동 409호. 02-593-6163
崔敬容=최베드로 신부. 천주교 신선성당.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3가 84. 051-418-8302

제 22 회

金萬吾=세계일보 전문위원. 02-2000-1654
金昌浩=순천향대병원 일반외과 과장. 041-570-2144
呂贊基=인터넷 제국 대표이사. 02-2106-6300
梁漢植=부산에서 서울로. 한전 판매 SI팀장. 02-3456-4900
裴興元=삼성투신운용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 02-3774-7700
金文武=분당에서 세무사사무소 개업. 031-702-4300
李永和=보람건설 창업 대표이사 취임. 02-578-8777
曹貞圭=법무법인 정평 고문으로 취임. 02-599-3030

제 24 회

姜東雨=한빛은행 부산지점 기업 고객지점장. 051-245-7429
金圭哲=(주)NEI TEC 대표이사. 051-305-5688
金有信=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051-510-2376
文輝英=(주)평화기술감리단 상무이사. 051-313-0131
朴海成=고려 S. E. CO 고문. 051-807-7112
徐正大=(주)중앙실업 대표이사. 녹산공단으로 공장 이전. 051-293-5489
孫世榮=부산 경상대 경영과 교



수. 051-850-1101
安相洙=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51-806-3820
余聖瑾=충무골프 대표. 051-241-4344
李基元=교육청 교육지도과 교원단체 담당사무관. 051-8600-256
李相龍=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051-200-6459
鄭準錫=태극기원 대표. 051-868-9992
崔昌林=영진상사 부장. (자택이사)부산시 금정구 안락1동 431-7. 051-301-0831

제 25 회

具滋勳=삼성물산 이사. 5월 9일 부친 별세
金宗勳=한국감정원 동래지점. 5월 12일 모친 별세
安大相=(주)신아 상무이사로 재직중 퇴직. 011-9719-1438

제 26 회

權海國=일미집. 051-808-7103. 804-5254. (자택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248-19 (18/4). 051-512-3056
이종화=울산 평화기업 이사. 051-287-1683. 018-582-7116
金燮權=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105동 503호. 051-266-6968
河盛鳳=부산시 북구 덕천2동 383-24 (10/4). 051-332-1325
金亨國=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051-510-2232. (자택)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경동아파트 101동 1202호. 051-508-4504
白裕撰=현대병원 산부인과. 051-553-6161
裴甲祥=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1176 가락타운 309동 908호. 051-204-6489. 019-538-8972
安恭立=고려한방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 051-803-0261~3
崔泰龍=하안치과. 051-558-2281.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삼익아파트 1동 1106호. 051-529-3718
鄭大根=기장군 장안중고(수학). 051-727-5918.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화목아파트 106동 2103호. 051-702-3269. 011-442-3269
李成求=유창삭도 대표(동래 금정산 Cable-Car). (자택)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81 경보아파트 102동 1501호. 051-514-7180. 017-854-1761
李政一=한국기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051-516-1506
林昌鉉=침례병원 임상병리과. (자택)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선경3차아파트 309동 902호. 051-515-5309
河吉泰=(개업)해소복국. 055-337-6339.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산문리 41-4 대동아파트 3단지 앞

제 27 회

姜潤正=아자동 도림 출장소장 이동
金重喆=(주)인포넷 전무로 취임
김진희=(주)HOW INTEL KOREA 대표
辛容度=(주)원전교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사장
安庭奎=신한과학(주) 상무로 승진
李光男=(주)삼성증권 기업담당 상무
李興載=대한 인터내셔널페이먼트(주) 전무
全泰元=세기문화사 서울지역 근무
車東珉=LG캐피탈 인사총무담당 상무
崔正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黃水英=코스코 로지스틱 한국지사장
朴勝俊=2월 11일 모친 별세

제 28 회

鄭仁植=(이전)정인갤러리. 부산시 중구 동광동1가 1 부산대파트 2층 라부 15호. 051-248-9090. 017-565-8202. E-mail:cnigallery@hanmail.net

제 29 회

金鍾珍=(주)대영공업 전무이사로 변경

제 31 회

鄭哲守=동기회 회장. 하나병원 원장. 051-266-2600. 011-567-8273
朴武澈=박무철치과의원. 051-403-1155. 016-584-3062. pmc503@hanmail.net
金判德=동기회 총무. 삼성여고 수학 교사. 051-291-1846. 011-864-8764. ah-ha58hanmail.net
金起正=정진기업. 051-403-5100. hl5bpx@kornet.net
田湘吉=한국통신 부산통신망운용국. 051-463-9414. 016-589-9104. jeonsk@hanmir.com
趙永基=부산광역시청 경제정책과. 051-888-3021. 011-9320-2840. ykcho@metro.pusan.kr
朴環洙=(주)양산위생공사. 055-382-2304. 011-837-3601. jung8803@chollian.net
徐壽教=삼성석유화학 서산공장. 041-660-8450. 017-711-6360. skseol@hanmir.com
鄭福載=삼성종합화학. 041-660-6123. 011-281-6407. bobjoe@samsung.co.kr
李基哲=달님별님 가족공동체 대표. 052-261-0735. 016-840-0735. dal@dalnim.net
全增旭=장전중학교 과학교사. 051-513-4373. 011-9528-1054. jw-jeon@hanmail.net
孫永太=한국카텔코. 051-831-7720. 011-9549-7721. kcind@catelco.com

제 34 회

이해영=부산인터넷방송국 인터넷사업부 차장.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63-9. 051-462-6500. 019-579-2601. E-mail:manager@pibs.co.kr

제 36 회

金允永=서민의원. 부산시 남구 용호1동 370-8. 051-621-7890.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대우2차아파트 210동1202호. 051-703-2139.

제22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문
 강봉기
 강성만
 김영진
 김영주
 김영수
 노승철
 박언표
 박성열
 박재상
 이대선
 이성모

이성철
 이인덕
 유재인
 유허영
 구환용
명예회장
 손경윤
회장
 김학균

부회장
 김도살
 박승목
 이철응
 장영근
 정상수
 이민성
 변대길
 한태욱
 김동영
 김진영

이사
 김명환
 김성재
 김일봉
 김진귀
 박변중
 배손연
 안진환
 양형국
 이웅규
 이재성
 장성덕

정도인
 정용주
 정주최
 한서박
 장강권
 송승임
 조성봉

재무이사
 김일준
감사
 김병수
총무
 김기형
 손용섭

둘들산우회 회장 최일룡
 둘들기우회 회장 정은수
 둘들골프회 회장 김도살
 둘들낙시회 회장 김성재
 재경동기회 회장 부근시
 총무 이재호
 마창지역동기회 회장 강상대
 총무 정정규
 울산지역동기회 회장 박홍조
 총무 민훈기

“오랜 만일세”

홈 커밍 만발

“너무 반갑네”



제15회 동기회

40

“우리는 이제 부푼 소망과 뜨거운 열정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분수를 지키는 처신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경남고 국산기념관. 제15회 동기회 졸업40주년 홈커밍데이행사장. 정창환 명호근 부산 및 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한 1부 기념식에서 정 회장의 이같은 회고사가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사진).

동기생 150여명(미국 3·중국 1명 포함)과 내빈 10여명(조대제 본부동창회장·김성찬 경남고 교장·주기민 경남중 교장 포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호근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축하와 격려 속에 끝났다(사회·김관열 총무).

기념식은 장학금 전달에 이어 추월영 당시 교장선생님을 비롯, 김재정 주상우 김석희(이상 부산) 김계곤 박정혁 이우량 양응주 허 발(이상 서울) 선생님께 사은품(각 다기 1세트)을 증정했고(이날 은사님들은 노구를 염려한 준비위원회의 배려에 따라 초청되지 않음). 경남고에는 기념사업으로 우승기·우승컵 진열장을 기증했다.

미국·중국 등 150여명 재회 바닷가 포장마차 모두 대접

그리고 전 동기생에게는 손목시계와 회원명부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특히 조대제 본부회장은 박찬호(부산) 강수창 동문(서울)에게 공로표창패를, 김성찬 경남고 교장은 김학현(부산) 주정중 동문(서울)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일행은 오후 7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카프리로에서 열린 2부 축제(사회·연극인 김승일)에서 회포를 풀었다.

축배에 앞서 정창환 회장은 부산 서울 역대회장 3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 그간의 헌신적 기여를 치하했다.

이어 MBC 전속악단의 흥겨운 밴드 플레이와 초청 여가수의 발랄한 춤이 결집된 열창, 동기생들의 노래와 장기자랑 등이 어울려 ‘가버린 청춘’을 불러세웠다.

일행은 밤 11시부터 해변의 모든 포장마차를 대접(?)해 새벽 5시까지 뒤풀이를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그리움 쌓인 정담을 토해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계획들과 영원한 우정을 간직하자는 언약을 되풀이했다.

한편 1·5회(골프모임)는 이날 행사에 앞서 통도CC에서, 뒷날 13일에는 아도니스CC에서 두차례 라운딩했다.

제25회 동기회

30

제25회 동기회 졸업30주년 홈커밍데이가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박경원 당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은사 22명과 동문·가족 350여명(미국 오태관 김무성 김진국 동문과 부인 100명 포함), 조대제 본부동창회장·오거돈 부산시 정무부시장(21회)을 위시한 내빈 10여명 등 모두 3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회 강석철).

조광도 박영안 부산 및 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날 1부 기념식에서 조 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홈커밍데이행사는 ‘언어의 모천회기’ 생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모교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라며 “동기생 모두가 연대의식을 갖고 사회 주도층이 되어 상부상조하면서 발전하자”고 말했다.

조광도 회장은 이어 장학금 전달·사은품 증정·모교기념사업 기증·‘자랑스런 25동문상’(박종웅 서병수 이운택 양맹준 김남일 김정태) 수여 등 순으로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조대제 본부회장은 김진철(부산) 허철구(서울) 동문에게 공로표창패를, 김성찬 경남고 교장은 제영성 김상필 박영안 동문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특히 조 동기회장은 기념식 도중 1962년 이래 39년간 모교 경비업무에 종사한 주차중씨에게 기념품을 전달, 감격

박종웅 등 5명 ‘25동문상’ 수상 뮤지컬 톱스타 출연 문화축제로



의 박수를 보냈다.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부 축제는 한국 연극계의 거장 이운택 동문 연출의 격조 높은 문화행사로 꾸며졌다.

부산 팝스 오케스트라 반주·온누리예술단 타악·상모품 물놀이·동서대 교수 4중창단의 축배의 노래·원로가수 김삼국 동문의 만담과 ‘쾌지나 칭칭나네’ 등이 신명을 끌어냈다.

또 특별축하무대인 ‘뮤지컬 갈라쇼’에서 뮤지컬 ‘명성왕후’의 주연 이태원 등이 아리아 ‘백성이며 일어나라’ 등을 열창했고, 동서대 뮤지컬학과 남녀학생들의 ‘힙합과 재즈’ 이정중 동문·정동숙씨(뮤지컬배우) 사회의 동문 장기 및 노래자랑이 절정을 이뤘다. 재학시절 응원단장이었던 김영국 동문의 선창으로 ‘후라! 경고!’를 외친 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제35회 동기회

20

제35회 동기회가 졸업 20년 만에 첫 홈커밍데이행사를 지난 5월 5일 오후 3시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당시 박찬우 교장·이희문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은사 13명과 동문·가족 550여명, 조대제 본부회장을 위시한 내빈 10여명 등 모두 570여명이 참석했다(사회·홍성표).

정운성 정충길 부산 및 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날 1부 기념식에서 정 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미운 정과 고운 정이 한꺼번에 다 든 동기생”이라며 “굳은 것들은 오늘 ‘홈커밍데이 용광로’에 넣어 모두 녹여버리고 이 자리 감격과 다짐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충길 서울 동기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장학금을 전달했고, 은사 사은품 증정 및 모교기념사업(사업비 600만원-‘우리는 자랑스러운 경고인’ 슬로건 양각된 기념물) 기증식을 치렀다.

이어 조대제 본부회장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영철 이철규 동문에게 공로패를, 김성찬 경남고 교장은 권경립 박규병 유재상 이복근 동문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각종행사 중 최대 570여명 참석 기금 3000만원 적립 ‘흑자사업’

1부 기념식이 끝난 후 동문·가족들은 원형교사인 덕령관 앞에서 단체사진과 반별 기념촬영을 했다.

특히 조대제 본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졸업 20년 만에 마음의 고향인 모교에서 이렇게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 재회한 기쁨은 값진 영원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30년, 40년 행사에 다시 모이기 위해 사회의 주춧돌로 발전을 거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행은 기념촬영에 이어 휴식을 취한 후 학교 체육관으로 옮겨 2부 축제에 들어갔다.

인기 MC 한병찬의 사회로 진행된 축제는 무용단의 퍼레이드와 초대 여가수 등의 열창, 반별 장기자랑 및 대표가수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은사와 제자의 합창·디스코 경연은 장내를 압도했고 20여년간 흐르는 사제의 정을 ‘강물’로 퍼올렸다.

이번 행사는 졸업 이후 각종 행사 중 최대의 참석률을 나타냈고, 최고의 모금액(1억원·사업비 행사비 등 제외하고도 3000만원의 기금)을 기록하게 된 흑자행사로 자평됐다.

동문 치과의사(전공의) 초빙

이번에 정소영치과를 폐업하고, ‘유니온(UNION) 치과병원’이라는 명칭으로 300평 규모의 치과 임플란트 전문병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전용 엘리베이터·전용 지하주차장·장애자 진료 코너 등을 설치했습니다. 치과 장비로는 악골정밀진단을 위해 우리나라 치과계 최초로 CT촬영 및 10DR시스템을 도입하고, 치과보철에 있어서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도재를 주조하여 치아를 만드는 ‘PROCERA SYSTEM’ 등의 최첨단 장비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할 동문 치과의사(전문의)를 최고의 대우로 모십니다.

모집인원 6명

희망자는 정소영 본부동창회 고문(6회)에게 연락 바람.

TEL. 051)245-2547-8. 019-441-2547

개원장소임대

- 부산 중구 대청동
- 5층 건물 중 2층 38평
- 냉난방·심야전기·태양열 가동
- 치과장비는 제외
- 39년간 성업 중임
- 시설확장(병원급)으로 이전 6월 말 양도 가능
- 국제시장 걸어서 3분, 지하철 10분 동문 치과의사에게 좋은 조건 양도함